



코로나19에 방치된 이탈리아 요양원...4월 신규 확진 44% 차지

기사입력 2020-04-26 19:14

고등보건연구소 표본 조사...24.7%는 가정, 10.8%는 병원 감염



코로나19 '핫스팟'으로 지목된 이탈리아 요양원(치비타베키아 AP=연합뉴스)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치비타베키아에 있는 산타 체칠리아 요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립보건원은 전국의 요양원에서 지난 2월초부터 최소한 6천773명이 코로나19와 관련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4.17.

jsmoon@yna.co.kr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4월 한 달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절반이 요양원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26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국립 고등보건연구소(ISS)는 이달 1~23일 사이 신규 확진자

4천500명을 역학 조사한 결과 44.1%가 요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4.7%는 가정에서, 10.8%는 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터에서 전파된 사례는 4.2%였다.

이는 요양원이 코로나19 검·방역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는 일각의 관측을 확인해주는 통계다.

이탈리아 검찰은 현재 바이러스 확산 거점인 북부 롬바르디아주(州) 내 많은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피오 알베르토 트리불치오' 요양원 전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밀라노의 최대 규모 요양원인 '피오 알베르토 트리불치오'의 한 직원은 발병 초기 요양원 측이 바이러스 공포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 등을 금지했다고 내부 고발을 한 바 있다.

검찰은 감염 환자가 쏟아져나온 지난달 주 당국이 일선 병원의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 중이던 환자를 일부 요양원으로 보내면서 방역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요양원의 경우 거주자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확한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매일 집계하는 신규 확진자·사망자 통계에도 요양원 피해는 빠져있다.

다만, ISS는 최근 전국 1천여 요양원을 긴급 조사한 결과 2월 1일부터 최근까지 총 6천773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40%인 2천724명이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5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5천351명으로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사망자는 2만6천384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lucho@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팩트체크] 국제원유가 마이너스면 휘발유 공짜?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572528>
